

# 우협

## 전국한우협회 김남배 회장, 김영자 부회장 당선 제 6대 김남배 회장 취임, 이사회서 중앙회 집회 결의



전국한우협회 제 6대 김남배 회장이 취임하고 첫 이사회를 개최하여 미산 쇠고기 관련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한우협회는 4월 30일 안성 농협연수원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제 6대 회장에 김남배 후보가 당선됐다. 이날 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이근수, 기호 2번 김남배, 기호 3번 조위필 후보가 나와 경선을 한 결과 김남배 후보가 1위를 차지했으나 과반표를 얻지 못해 이근수 후보와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결선투표에서는 큰 표차이를 보이며 과반표를 넘는 득표를 해서 당선됐다.

이어 생산자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6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규석 초대회장과 남호경

전 회장이 격려사를 하였으며 김남배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미산 쇠고기 등에 대해 강력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식 직후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해 BSE 발생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오는 9-11일 사이 중앙단위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하고 그 전에도 촛불집회 등에 적극 동참하는 등의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라이브뉴스 광동신기자

# 양돈

## ‘한돈의 새로운 얼굴’ 탤런트 김현주씨 선정 한돈자조금, ‘한돈 웰빙 삼총사로 건강관리 받자’ 내용으로 TV, 라디오 광고 제작

‘한돈 웰빙삼총사로 건강관리 받자’라는 내용으로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TV, 라디오 광고가 제작되어 오는 6월부터 방영된다.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새로운 알리미로 탤런트 김현주씨가 선정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지난 4월 20일 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대행사 선정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2012년 한돈 소비촉진 광고의 컨셉을 확정 지었다. 이날 선정된 광고대행사 JWT는 기존부터 이어져 오던 한돈 웰빙삼총사

의 컨셉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건강함에 외모 가꾸기까지 한층 넓어진 웰빙의 트렌드에 따라 텔런트 김현주씨를 모델로 ‘한돈 웰빙삼총사로 건강관리 받자’라는 TV, 라디오 광고를 제안하여,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광고는 메인모델인 텔런트 김현주가 안심, 등심, 뒷다리살의 웰빙삼총사의 컨설턴트를 통해 생활 속에서 관리를 받아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제작된다.

한편, 한돈자조금은 저지방 부위별 우수한 영양성분과 한돈의 웰빙, 건강 이미지를 부각해 나갈 예정이다.

새로운 한돈 소비촉진 광고는 6월1일부터 TV, 라디오를 통해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서울 및 부산 KTX 역 등 옥내·외 광고를 통해 소비자 접점에서 동시에 노출될 계획이다.

라이브뉴스 홍귀남 기자

## 양계

### 친환경 양계산물 생산 방안 머리 맞댄다 가금학회, 내달 11일 춘계 국제심포지엄

양계농가들이 친환경 양계산물의 생산을 모색할 수 있는 학술의 장이 열린다.

한국가금학회(회장 한재용) ‘2012 춘계국제심포지엄’이 오는 5월 11일 전북대에서 개최된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친환경 양계산물 생산 대응방안’으로 국내외 친환경 양계산물 생산 흐름과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춘계심포지엄에서는 김재홍 서울대 교수, 모인필 충북대 교수, 이상진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DR Marc Bosch가 ‘EU에서 콕시들통치료’ ▲DR Emilio del Cacho가 ‘Eimeria 항면역작용’ ▲Hyun Lillehoj이 ‘괴사성 장염 예방’을 발표한다. 국내에서는 ▲김은집 연암대 교수가 ‘친환경 사양관리 방안’ ▲권순관 천하제일사료박사가 ‘최근 육계성장 성적 향상과 교효율 사료의 적용 현황’ ▲김기홍 농식품부 주무관이 ‘친환경 축산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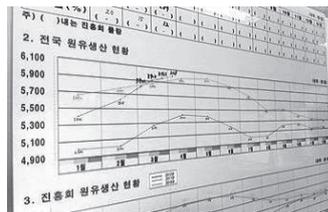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 낙농

### 원유 하루 생산량 6천톤 넘어서 이달 초 전국 평균생산량 6천18톤... FMD 이전 수준 회복

올 유량 전망치 최대 211만톤  
공급과잉 우려 목소리 높아져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4월 초순 일평균 생산량이 6천18톤으로 집계됐으며 일평균 생산량이 6천톤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0년 5월 이후 23개월만에 처음이다.



일평균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FMD피해가 가장 심했던 1월에 4천톤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이후 꾸준히 생산량이 증가해 왔다.

이처럼 원유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FMD로 인해 원유부족사태를 겪으면서 유업체들이 각종 증산정책을 앞다퉈 내놓았기 때문이다.

유업체들은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쿼터제 폐지, 잉여원유에 대한 정상가격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기본원유가격 인상과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 상향 조정에 따라 낙농가들의 생산의욕이 높아진 것도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5월 이후에는 원유 생산량이 한풀 꺾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FMD로 인해 인공수정에 차질을 빚었던 것이 지난해 2월 이후 집중되면서 이 때 수정된 젖소들의 분만이 집중되면서 원유 생산량이 급증했다.

이들 젖소가 최근 비유 피크기를 맞고 있으며 피크기가 지나면 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하반기 원유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관련업계는 당초 200만톤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최근 원유 생산량 등을 감안해 전망치를 수정했으며 최대 211만톤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 유채꽃, 꿀벌 밀원용 딱

유채꽃이 봄철 꿀벌 밀원용으로 안성맞춤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에 따르면 봄에 피는 유채꽃에서 채취한 벌꿀은 포도당 성분이 다른 밀원의 벌꿀에 비해 많고 꿀 따는 기간이 길어 유채꽃이 봄철 밀원용으로 제격이다. 봄철 유채꽃에서 얻은 벌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각각 33.5%, 35.7% 함유됐고, 이당류인 맥아당도 1.9% 함유됐다.

또한 꿀벌이 꽃가루를 타액과 꿀로 반죽해 뒷다리에 묻쳐 가져오는 화분립은 꿀벌과 애벌레의 먹이가 되므로 유채꽃은 이른 봄 꿀벌의 활력을 높여 아카시아꽃 등 다른 밀원으로 벌꿀을 채취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 이같은 화분립에는 비타민과 인체에 필요한 16가지 미네랄 중 12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진다.

유채는 꽃이 피면 아름다운 관광자원이자 양봉농가에게는 소중한 밀원이 된다. 유채꽃 밭에 꿀벌을 방사해 얻은 채밀량은 14.4kg/ha이고, 채집 화분량은 4.7kg/ha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영석 박사는 “유채가 밀원으로 좋은 이유는 한 줄기에서 많은 꽃이 피지만 한꺼번에 피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차례로 피는 습성으로 꽃이 오래가고 꿀 따는 기간도 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어민신문 문광운 기자

양  
록

### 저지방 · 저콜레스테롤 사슴고기

절각 후 사슴 비육 기술 활용,  
사슴고기 생산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사슴뿔을 자른 후 녹용생산량이 적은 사슴은 바로 도태하기 보다는 비육해 사슴고기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사슴사육의 주목적이 녹용생산에만 치우쳐 사슴고기의 생산에는 농가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나 세계 제1의 양록 국가인 뉴질랜드는 양록산업 총생산액의 80% 이상을 사슴고기 생산에서 얻고 있다.

사슴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지방의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어 외국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도 건강을 생각해 웰빙 식품을 많이 찾고 있다. 육류에서도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저지방, 저콜레스테롤의 고기를 많이 찾는데 바로 사슴고기가 여기에 속한다.

사슴고기의 특징은 영양적인 측면에서 단백질, 비타민B와 광물질은 다른 가축의 고기에 비해 높은 반면 지방, 포화지방산, 열량, 콜레스테롤은 낮은 편이다. 지방산 조성은 50~55%가 불포화 지방산이며, 철분이 많아 사슴고기의 유통은 진공비닐 포장을 해야 하며, 사슴고기의 다즙성과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서 짧은 시간에

요리하는 것도 사슴고기의 특징을 잘 살리는 방법이다.

사슴은 소화생리의 특수성으로 특히 수사슴은 봄철부터 초가을(9월 초순)까지는 사료의 섭취량이 늘어나고 체중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9월 초 발정기가 되면 자발적으로 사료의 섭취량이 줄어들고 체중의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발정기 한달 사이 17% 정도 감소).

따라서 수사슴은 녹용성장기부터 사료의 급여량을 늘려 급여하면 녹용의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각 후에도 발정기 전까지는 농후사료(CP 20%, TDN 70%)의 급여량을 체중비 1.8% 이상 급여하면 엘크사슴의 경우 일당증체량이 1.1kg 정도 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3년동안 사슴고기 연구를 시작해 녹용과 녹증탕의 획일화된 판매에서 벗어나 사슴고기를 통한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